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춘다

정부 규제 완화책 발표...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설립 가능 전남 20개 시·군 포함 인구 감소지역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도심 폐교 등 활용...조선대 캠퍼스 시니어타운 탄력 받을 듯

조선대는 학교 부지 내 은퇴자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니어타운을 추진 중이다.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으로, 고령화 시대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 건강, 의료 등 기반시설을 갖춰 경쟁력이 있다는 게 학교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3956세대)이 공급됐지만 고령층 수요에는 한

계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중도 0.12%로 미국(4.8%), 일본(2.0%) 등에 견줘 매우 낮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는 토지·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한 실버타운 건립 규정을 바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쇼코케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순천·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올해 소멸위험지역(90.9%)에 포함될 상태라,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들 지역 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해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땅값 등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류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UGB) 민간

임대 용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자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내년부터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 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성경제인협회 목포시 창립 10주년 기념식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3일 현대호텔 바이리안 목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여성 친화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 아시아건축국제공모전·아이디어공모전

31일 사전 접수 시작으로 개막

2024 광주 아시아건축국제공모전과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31일 사전 접수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광주시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제공모전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아이디어공모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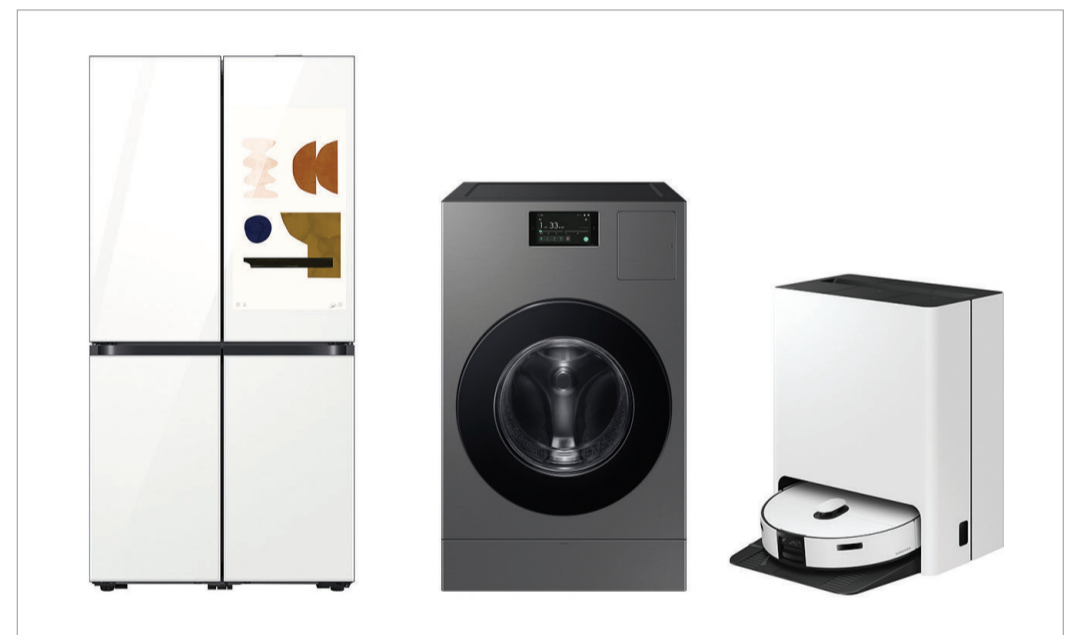
광주 건축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s://gwangjuproject.kr/gac7/index.php>)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은 후 접수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국제공모전은 아시아 각국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밀린 건축의 본래 목적인 인간의 삶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주제를 '인권과 건축'으로 정했다.

심사를 통해 국제공모전 대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건축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협회 이순미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모든 건축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라는 일종의 건축 권리장전 선언"이라며 "창의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 인간공학디자인상

AI 콤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정

삼성전자 비스포크 가전(사진)이 '2024년 인간공학디자인상(Ergonomic Design Award)'을 수상했다.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인간공학디자인상은 국내 인간공학 설계 분야 최고 권위 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사용 용이성과 기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패밀리' 냉장고와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비스포크 AI 콤보'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에 선정됐다.

비스포크 AI 패밀리리브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탑재해, 냉장고에 넣고 빼는 식재료를 자

동으로 인식한다.

식재료를 파악해 음식을 추천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보관기한이 임박한 경우 알림 기능도 갖췄다.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세탁부터 건조까지 세탁 한 대로 가능하다. 또 '오토 오픈도어' 기능은 세탁과 건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부 습기를 제거하고, 쉽게 세탁기 문을 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인치 터치스크린 'AI 홈'은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돼 접근성을 높였다.

이밖에 삼성전자 물걸레 일체형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 입주기업 공장 건설 전 야적장 주차장 용지 임대 가능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공장 건설 전 타인의 부지를 임대해 야적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에는 공장조립을 위해 임대해야 해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수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 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한편, 산업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IT) 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급발진 의심 자료 제출 안하면 제조사 결함 추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조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가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6월 생산자물가 7개월만에 하락 물가지수 전월보다 0.1% 내림

지난달 농산물 등 가격이 내리면서 생산자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9.25)보다 0.1% 낮은 119.19(2020년=100)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6월보다는 2.5% 올랐던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작년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2.8% 하락했다. 축산물이 2.5% 올랐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6.6%, 0.8%씩 내렸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음식료품(0.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1%)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0.1%)은 내렸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9%) 등이 내려 0.1% 하락했다. 서비스는 0.1% 올랐다. 사업지원서비스(-0.5%)가 내렸으나 음식및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2%) 등은 상승했다.

/정영영 기자 zzang@



'청주 미친만두' 맛 보세요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청주 맛집 '청주 미친만두'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다양한 먹거리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동안 청주 만두 맛집으로 SNS에서 유명한 '청주 미친만두'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초당옥수수 호떡' 팝업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광주시 송정동 명물 '송정리 1913 떡갈비'의 다양한 떡갈비 제품들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녹색에너지연구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나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채용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25명이 현장 면접을 통해 15명이 합격해 직장을 얻었다.

연구원은 구직자와 지역기업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스마트팜 회사인 플랜티팜과 혁신산단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인 중앙산업, 소셜커머스기반 운수업체인 쿠팡이 구인 기업으로 참여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많은 구직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최했다"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민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74.29 (+10.78)
↑ 코스닥	812.12 (+2.16)
↑ 금리(국고채 3년)	3.084 (+0.013)
↓ 환율(USD)	1386.20 (-2.00)